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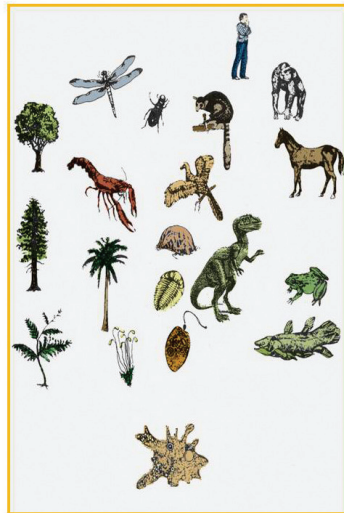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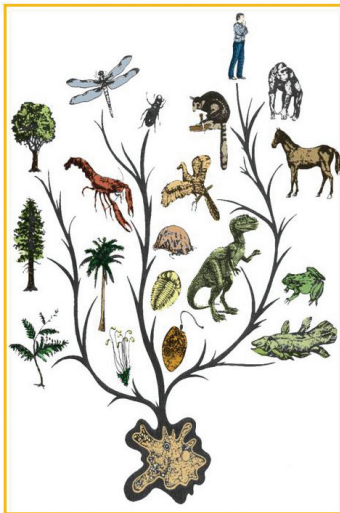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7 Number 2 • 2 2009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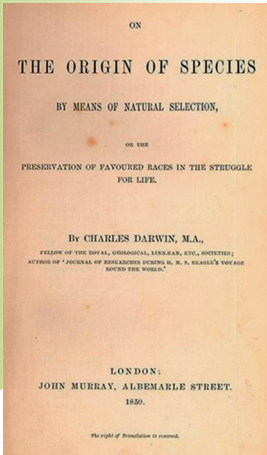
다윈의 책, 『종의 기원』



창조 혹은 진화의 문제는 과학적인 방법론에서 보아도 이미 사실관계가 끝난 것이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1859년 11월 24일에 출판 되어 진화론의 이정표가 되었다. 이 책은 원래 제목은 <자연선택, 즉 생존경쟁에 우호적인 종족의 보존에 의한 종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출판 되었는데 1872년 6판이 나오면서 <종의 기원>이라는 간략한 제목을 갖게 되었다.

다윈은 생물집단들이 대대로 자연선택의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진화한다는 이론을 이 책을 통하여 세상에 소개한 것이다. 이 책은 자신이 1830년대에 비글호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계속된 연구를 통하여 완성하였는데 비전문가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쓰여져 넓은 관심을 받았다. 그 내용은 당시 생물학적인 이론들이 지지했던 종교적인 믿음(창조론)과 대치된 것이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었고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토론을 야기 시켰다. 다윈이 공헌한 과학 이론인 진화론 자체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자연선택의 개념은 종분화(speciation)를 설명하는 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압도적



1859년에 출판된 다윈의
〈종의 기원〉 초판 표지

으로 높은 과학적인 여론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이 진화 이론에 대해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진화이론은 단순한 과학적인 이론을 넘어서 철학과 종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생각을 바꾸어놓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가장 진화된 동물일 뿐이란 사상을 심어 놓는 데 성공을 한 것이다.

진화론이 바탕이 된 동물적인 삶은 나체주의나 동성결혼, 약육강식이 배경이 된 인종주의, 전쟁, 노예제도,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생명 경시 현상인 안락사, 낙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으로 자연스럽게 표출 되고 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아담이 첫 사람이 아

니라 유인원과 그 이전의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아담이 있기 전에 죽었다고 상상함으로써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의미를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존립을 부정하는 이론이 되고 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 위에 세워진 이론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언제나 반성경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진화 이론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받고 있는 진화론의 영향력은 잘못 된 것이므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1월호 Creation Truth 1면(다윈 출생 200주년을 맞이하며)에서 우리는 이 진화론의 사실성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글들을 발췌하여 실었다. 여기서 ‘사실’이란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혹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진화란 소진화라 불리는 종분화(speciation)를 뛰어 넘는 변화(대진화)를 말하는데 창조론자나 진화론자를 불문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 변화는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는 사실이다.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선임 고생물학자였던 패터슨(Collin Patterson)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March 4, 1982)에서 “어떤 사람도 자연선택 과정에 의해 종을 생산해내지 못했다. 그 근처에 접근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도 (그 이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진화하고 있는 진화론의 가장 큰 골격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인데 패터슨 박사는 바로 이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1981년 11월 20일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도 과학자들에게 연설을 하였는데 첫 부분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20년 이상 연구해 보았지만 진화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다른 학자들에게 진화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 봤지만 한 사람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침묵 뿐이었다. ...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진화론에 대해 생각해 보셨다면 그것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가 진화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것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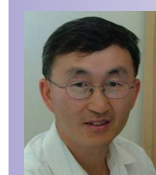
진화는 실재(reality)가 아니기 때문에 진화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는 고백이다. “인슐린”이란 예를 들어 실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자. 인슐린이란 분자량은 5,808이며 췌장(pancreas)의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져 분비 되어 혈중 당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51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의 역할과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인슐린이란 것은 실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자료)은 수십 권의 책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만큼 방대하다. 그러나 “진화”란 것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어 침묵만 있을 뿐이란 말이다.

이런 증언들은 과학 지식이 쌓여진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론을 소개 한 다윈 자신도, 1872년에 쓴 <종의 기원> 6번째 마지막 개정판(p. 413)에서 “왜 모든 지질층이 중간고리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지질학은 그렇게 잘 배열된 생물의 고리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이것이 그 이론(진화론)을 반박하는 가장 분명하고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진화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었음을 이미 시인하고 있었다.

진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를 둘러 봐도 그런 흔적이 없다. 압도적으로 높은 과학적인 여론을 얻고 있다고 해도 진화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사실이란 것은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의 의견이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진화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임이 더욱 확실해져 왔다. 그러므로 이에 반비례하여 창조 사실(진리)은 더욱 확실해 지고 있는 것이다. 존재의 기원에 대한 논리적인 대답은 창조 혹은 진화 둘 중의 하나뿐이고, 진화는 관찰도 되지 않고 가능성도 없고 진화론자들조차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론에서 보아도 이미 사실관계 정리가 끝난 셈이다. 더구나 진화론은 과학적 가설조차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그 가설의 사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가설은 과학적 가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학교나 TV에서는 진화가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요?” 진화를 부정하는 내용을 소개할 때면 의례 나오는 질문인데 이에 대한 대답도 이미 진화론자들이 잘 정리해서 말해 주고 있다. “진화론이 널리 받아 들여지는 이유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증거에 의해서 사실로 증명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유일한 대안으로서의 “특별한 창조”를 절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Watson, “Adaptation”, Nature 124:233, 1929). 이런 사상이 실재가 아닌 수백 만년에 기반하여 성립 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진화론의 진면목이다. 세상에서 다윈의 해로 떠들썩하게 행사를 치르는 올 해가 오히려 진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최우성

서부지부장
생리학박사



사회진화론자들의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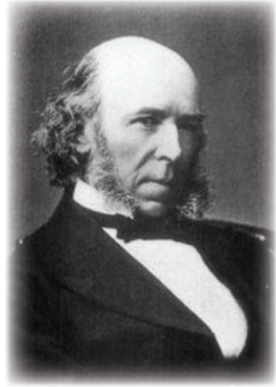
진화론은 단지 과학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화라는 개념 자체가 과학이 아니라 세계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세상을 지속시키고 있을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등의 근본적 질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에게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추측하거나 믿고 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진화를 믿게 되면 이 믿음의 영역은 당연히 진화론적 사고로 메우게 된다. 그러므로 진화를 믿었던 사람들은 위와 같은 세계관 질문에 대한 답을 진화론적 시각에서 얻으려고 노력해왔다. 이렇게 진화론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사회진화론(Social Evolutionism)이라고 한다. 사회진화론은 진화론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전제를 두고 있다.

세상은 비인격적인 힘이 지배하고 있다.

진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회진화론자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자연”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며 역사를 통제하였으며 그 방향도 이끌어왔다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진화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제하고 이끄시는 역할에 훨씬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오히려 역사의 진보는 비인격적인 자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여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궁극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기독교는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회는 더 개선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진화론은 어떤 상황에서 우수한 것이 선택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발전된다는 기본 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진화론자들은 정치, 교육, 경제, 종교 다방면에서 궁극적으로 더 욱더 성숙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유토피아주의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진화론이 등장한 후에 한때 유럽은 낙 관주의적 세계관이 팽배한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가 진보를 통하여 조절할 수 있는 지능과 기술을 스스로 갖추었던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삶의 기준을 상실해서 도덕과 사회분야의 무정부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Herbert Spencer/윤리, 종교, 경제, 정치, 철학, 생물학, 사회생물학, 심리학 등에 진화론을 적용한 19세기 말 영국의 사상가.

영혼은 단지 뇌의 화학적 활동일 뿐이다.

진화론은 결국 모든 것이 물질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란 존재는 단지 뇌의 화학적 작용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물질계의 실험을 하듯이 인간에게도 계속적인 실험을 통해서 마음의 정체를 알려고 한다. 이런 자들을 행동주의자라고 부른다. 실제로 진화론이 대두된 이후에 조건반사나 학습 등 동물에게 실험한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많은 진화론적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떤 사회진화론자들도 인간이 다른 동물이 갖고 있지 못한 도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찌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롬 1:22-25). -이재만

AFTER EDEN



돼지가

날게 될 날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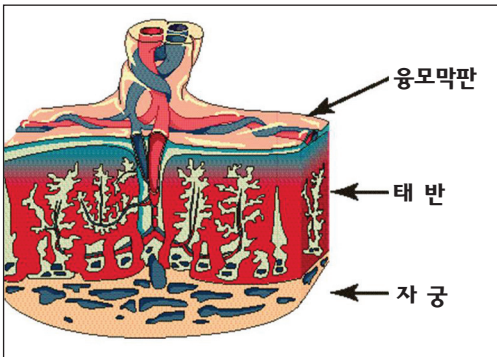
고운 모양도 없고

배꼽은 흔적이고 여기에는 열 달의 숨은 애기가 있다. 연결되어 있었던 탯줄의 끝에 간직된 사연은 이렇다.

수정된 난자가 이제 두개의 세포로 분열되면 그 중 하나는 태아의 몸이 되고 다른 하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태반으로 발전한다. 어미의 몸안에 다른 하나의 개체가 생겨 열 달 동안 모체의 모든 부분을 공유해가려면 처음 순간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한다. 먼저 자궁벽이 수정란 착상에 최적인 조건을 이루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또 모체의 조직이 새로 생긴 개체의 다른 조직을 배척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모체의 면역 시스템에 강력한 신호를 보

내야 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 착상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위해 태반은 먼저 각종 호르몬을 즉각 분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수정 후 6일째부터 태반조직은 자궁벽을 침투하여 스무개 정도의 태반 뿌리를 박는다. 이 비밀은 분재처럼 침투된 뿌리 조직의 특성에 있다. 이 조직은 핵이 많은 하나의 세포로 보면 되는데 이것의 총 면적은 9.3 평방 미터라고 한다.



주위에는 모체의 피가 풀(pool)을 형성해 있기 때문에 태아의 피가 탯줄을 통해 이 뿌리로 흘러지면 얇은 막을 경계로 신기한 일이 이루어진다. 태아에게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은 흡수되고 탄산가스와 배설물은 모체의 피로 스며나간다. 태아의 피는 모체의 피로부터 얇은 막을 경계로 분리되어 있어서 직접 혼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귀한 항체가 모체로부터 운반된다. 임신 말기쯤에 태아로 운반된 항체로 말미암아 신생아는 처음 3개월 동안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바이러스는 막을 길이 없지만, 매독과 결핵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균은 태아로 전염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풍진같은 바이러스 감염은 유산이나 청각장애, 뇌장애, 선천성 심장병 및 선천성 각막증을 초래한다. 또 막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알코홀, 니코틴 및 각종 약물이다. 이것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나에게 일시적인 것으로 중단하면 후손을 보! 호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가르치는 듯하다.

태아가 아기집 속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지 않아도 열달 동안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된다. 때로는 태반이 아기집 입구에 위치 할 때 출혈의 문제를 초래하거나 자궁근육 속으로 너무 깊이 박혀 아기 분만 후 쉽게 배출이 되지 않을 때는 산모나 의사에게 골치거리가 된다. 아기의 분만 후 붉은 혈관들이 즉각 잠가져 출혈을 기묘하게 막는 기전은 놀랍다.

이렇게 한 생명의 시작에 필수 불가결한 장기인 태반과 탯줄이 아기만 분만 되면 가족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고 만다. 귀한 생명을 주고는 쓰레기 통에 던져지면 그냥 망각속으로 사라져 철저한 희생의, ‘고운 모양도 없고 흠도 할 아름다울 것이 없는 그 분’을 연상케한다. 그런데 요즘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탯줄에서 채취해 저장해 놓은 피안에 있는 (성체)줄기세포로 말미암아 죽을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것도 역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의 질병에서 나를 해방해 주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 분을 또 연상케 한다.



최인식

창조과학선교회
회장, 의사

2 세대를 위한 AiG 창조과학세미나

- 200년간의 진화를 반박함

Answers in Genesis의 창조과학 세미나가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열립니다.

● 2009년 2월 6-7일(금, 토)

장소: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 (3800 S. Fairview St., Santa Ana, CA 92704)

강사: 켄 햄(Ken Ham), 데이비드 멘톤(David Menton), 앤드루 스넬링(Andrew Snelling)

6일(금요일) 6:30 PM - 9:30 PM

7일(토요일) 8:30 AM - 7:30 PM

● 2009년 2월 15-17일(일-화요일)

장소: Thomas Road Baptist Church (1 Mountain View Rd., Lynchburg, VA 24502)

강사: 켄 햄(Ken Ham), 앤드루 스넬링(Andrew Snelling), 데이비드 드윅(David Dewitt), 마커스 로스(Marcus Ross)

15일(주일) 6:00 PM - 10:00 PM

16일(월요일) 7:00 PM - 9:30 PM

17일(화요일) 7:00 PM - 9:30 PM

각 교회 단위로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잡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더 자세한 일정은 www.answersingenesis.org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탐사여행 | 총회

동양선교회

지난 11월 27~29일 추수감사절 기간에 동양선교회(담임목사 강준민)에서 탐사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매년 독서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평생학습원 팀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출발하기 두 주 전에 먼저 이재만 선교사를 통해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세미나로 세계관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뉴에이지 도시인 세도나를 지날 때 어떤 팀보다 이해가 빨랐으며 실제적인 실습이 되었습니다. 동양선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 기간에 탐사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한빛교회 탐사여행

매년 연말 탐사여행을 갖는 한빛교회(담임목사 정수일)가 이번에는 성탄절을 끼고 그랜드캐년을 향했습니다. 벌써 8년 째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내린 눈으로 그랜드캐년의 설경을 만끽하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탐사여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는 봄에 빙하시대 탐사여행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전에 참석했었는데 두 번째이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왔었지만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감동을 함께 나누시려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것은 언제나 감격입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양선교회 탐사여행-페인팅의 사막에서



유학생 탐사여행 - 그랜드캐년 메다 포인트에서

6차 유학생 탐사여행

2008년 마지막 3일은 유학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벌써 6차 유학생 탐사여행입니다. 이미 탐사여행은 유학생들의 세계관을 갖추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탐사여행보다 훨씬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감동의 일부는 간증 페이지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탐사여행은 기존 유학생들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릅니다.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변증'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는 과학, 역사, 철학, 세계관에 대한 모든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굴복되는 감격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 주위의 친구들을 다음 탐사여행에 꼭 추천하겠다는 간증을 합니다. 내년 여름 7차 유학생 탐사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서울 온누리교회와 열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월 지질학과학생들 탐사여행

2월 마지막 주에는 4박 5일간 지질학과 학생들을 위한 탐사여행이 진행됩니다. 모두가 한국에서 방문하는 지질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랜드캐년, 자이언캐년, 브라이스캐년, 레드락 캐년, 규화목 국립공원 등을 돌면서 성경적 지질학을 배울 예정입니다. 진화론적 지질학에서 성경적 지질학으로 전환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2월 총회

오는 2월 20-22일 3일간 창조과학선교회 총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각 강사진과 신임 강사진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의 사역에 대하여 함께 계획하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2009년에는 전임사역자인 김남준 박사(생화학)를 비롯하여, 김낙경 박사(식품공학)와 김선옥 박사(생화학)가 새롭게 강사진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자체 세미나도 진행되며, 특히 토요일인 21일 오후에는 라스베가스 근처의 Red Rock Canyon을 방문하여 노아홍수 후기에 대한 내용을 나눌 예정입니다.



유학생 탐사여행 - 규화목 국립공원에서



한빛교의 탐사여행 - 세도나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1:26)

하나님 형상의 인간

하나님께서 시간을 포함한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 마지막 차례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창조를 계획하시는 모습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필트다운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등 기존의 원숭이와 인간의 공통조상으로 발표된 유인원들에 대하여는 이미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 번 언급되었기에 자세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들은 공통조상도 아니며 언제나 원숭이는 원숭이 인간은 인간이라는 평행한 관계인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먼저 존재했던 인간 보다 나중에 존재했던 인간이 더 진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신체적 기능뿐 아니라 두뇌조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날 살고 있는 더 나은 현대인으로 되었다고 말한다.

그림은 인류학 책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인류 발생 계통표이다. 이 계통표는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진화해왔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 어디에도 인류의 두개골이 그림과 같이 순서적으로 발견된 곳은 없다. 오직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두개골들은 지표상에 수평으로 널려있는 것을 (진화론자들이) 오래되었다고 여기는 두개골을 아래에

그리고 최근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위에 모아 놓은 것 뿐이다. 실제로 연대측정의 원리문제 때문에 어떤 인류학자도 두개골이나 두개골이 놓여있는 지층의 연대를 측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발생 계통표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진화론’이다. 다시 말하면 이 도표대로 순서적으로 두개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것이 아니라, 널려있는 두개골을 책에 모으며 자신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믿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두개골 화석들은 어떤 시대에 말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들이 죽었을 때의 상태를 보여줄 뿐이다. 진화론자들은 두개골을 자신들 마음대로 나열해 놓고 (자신들이) 위에 놓여 있는 것들이 아래 놓여 있는 것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더 뛰어난 존재로 상상한다. 결국에 사람을 악하다 악하게 창조된 경쟁의 존재로 둔갑 시켜버린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발달하는 진화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으셨다. 기존에 창조된 피조물들 중에서 선택된 자만 살아남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피조세계 가운데 완벽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 어디에서도 유인원과 같은 진화과정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 진화론과는 반대로 처음이 완벽했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떠나면서 불완전해졌다고 말한다.

특별히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창조주의 성품을 닮은 존재며 창조주와 서로 교제를 나눌 대상이다.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도 아니고, 동물 중에 최고의 존재도 아니고, 그 동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인 것이다.



상상의 인류 발생 계통표



이재만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ICR 연구들



최근 ICR은 NCSF (the National Creation Science Foundation)란 재단을 설립하여 창조과학 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이미 여러 개의 연구과제들이 진행 중이거나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스틴 박사는 다윈의 '종의 기원' 출판 150년을 맞는 것을 즈음하여 과제를 시작하였다. 진화론자들은 그 책의 출판 기념회를 대대적인 진화론 광고 기회로 사용하여 한다.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명목상 크리스천이며 창조론자로서 여행을 시작했지만 라이엘(Charles Lyell)의 최신작 지질학의 원리(Principles of Geology)란 책을 가지고 갔는데 이 책은 동일한 과정들로 이루어진 오랜 세월과 결탁되어 있다. 지금은 빙하시대의 홍수로 짧은 기간에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르헨티나의 한 캐년을 다윈은 라이엘의 생각을 적용하여 계곡이 형성 되는데 긴 시대가 필요했었다고 설명하였다. 다윈은 이 오해를 갈라파고스 섬에서 관찰한 것에 적용해서 진화론적인 동일과정설을 만든 것이다. 오스틴 박사는 다윈이 잘 못 나가기 시작한 부분을 바르게 설명해 줄 증거들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는 차후의 진리 논쟁에 사용할 ICR의 짙막한 비디오도 만들려고 한다.

오스틴 박사는 노아홍수의 퇴적과 구조 지질학(Flood-Activated Sedimentation and Tectonics (FAST) 연구과제도 맡고 있는데 노아홍수의 지질학적 증거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관련 과학자들의 모임에서 많은 퇴적들은 역동적인 저탁류가 만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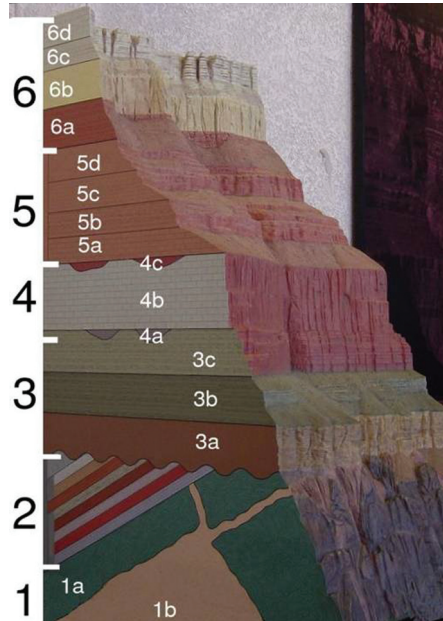
라는 지질학계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었다. 오스틴은 최근에 이 증거를 알래스카에서 연구했는데 여기에는 북아메리카와 태평양 판들이 홍수 중에 부딪히게 될 때 형성 된 아주 두꺼운 일련의 지층이 노출되어 있다. 이 층들의 남쪽 부분은 네바다에서까지 발견 되는데 다수의 FAST 연구과제들이 바로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질학자인 시글러와 윈저든(Roger Sigler & Van Wingerdon)은 이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엄청난 진흙사태(mud slide)가 길이 30 km에 이르는 바위에 끼어 있는 것이다! 이 진흙사태는 노아홍수가 시작 될 때, 바로 “모든 깊음의 샘들이 터진” 때인 것 같다(창 7:11).

바움가드너 박사와 버그 박사(John Baumgardner and Dr. Clarence Berg)는 대단층을 컴퓨터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바움가드너 박사는 와이오밍에 있는 하트 산맥(Heart Mountains)에 수수께끼처럼 급작스럽게 형성 된 유명한 단층구조를 조사하고 있다. 한 편 버그 박사는 수중(sub-aqueous) 상태에서 조각들이 흘러간 것을 산술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려고 한다. 이 모든 산술적인 연구는 바움가드너의

지도 아래서 ICR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수행될 것이다. 지질학자 클래리(Tim Clarey)박사는 같은 지역의 격변적인 중력 기울기(catastrophic gravity slides)들을 보게 될 것이다.

11월 회의에서 채드윅(Arthur Chadwick)박사는 공룡화석 발굴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보고를 하였는데 동일과정설적인 과정이나 엄청난 기간의 증거가 전혀 없음을 발견하였다. 모든 퇴적의 특징들은 빠른 격변적인 과정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위트모어(John Whitmore)박사와 스트롬(Ray Strom)은 그랜드캐년에 특징적인 코코니노 사암을 다년 계약으로 연구하고 있다. 오랫동안 그 사암은 사막에 화석화된 모래 언덕으로 생각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모래가 엄청난 물이 빠르게 흐를 때 생긴 물결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아홍수 이전층(1-2)과 이후층(3-6)을 보여주고 있는 그랜드캐년의 지층 구조

진행되고 있는 이 연구들 외에도 ICR 연구는 크리스웰(Dan Criswell)박사의 GENE 연구와 바디만(Larry Vardiman)박사의 대홍수 기간과 후의 폭풍 형태를 다루게 될 과거 기후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NCSF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연구 제안서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하면, ICR 연구에 있어서 새롭고 생산적인 시대가 열리고 있다.

출처: Morris, J. 2009. ICR Research Advances with the NCSF. Acts & Facts, 38 (1): 8.

6차 유학생 탐사여행

(12/29 ~12/31, 2008)

지난 2박 3일 동안의 유학생 탐사여행은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막연한(?) 믿음만 가졌었는데, 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를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릇되고 잘못된 진화론적인 이해에 대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많은 것을 깨닫고 느낀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유학생들이 탐사여행을 통해 천지를 만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열심으로 저희를 인도해주신 이재만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또 좋은 탐사여행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온누리교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태환, University of Michigan, Electrical Engineering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유학생 탐사여행 첫 번째 날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성경구절이다. 충격이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욕을 부러워했고, 궁금해 했으며, 나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2박 3일 여행 내내 실제로 이루어졌고, 신앙이 견고해졌으며,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가득하다. 너무 좋은,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내의 교회가 아닌, 한국의 온누리교회가 후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또 감사한다. 이러한 전도활동들이 비단 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통해 계속해서 더욱 견고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송 강, 유타대학교, Pre-Dental 과정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아해 했던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된 것 같습니다. 공학자로서 자연 현상이나 실험 등을 행할 때 저의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되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정말 알차고 쉽게 설명해주신 이재만 선교사님과 진화를 도와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에도 재정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상조, University of Michigan, Electrical Engineering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섬기면서도 진화론을 이해하고 믿었던 제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막연히 믿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창세기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 김혜린, Utah Valley University, Nursing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직 그 분이 제게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유학생 탐사여행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믿으려 노력했지만 아직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배워왔던 진화론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론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분의 위대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된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아직 믿음이 없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여 주님의 응답을 하루 빨리 받길 바랍니다. 이번 여행에서 주님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정보 나눌 수 있어서 제겐 뜻 깊은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정, BYU, 경제학

의심 많은 제게 증거를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 배은혜, Utah Valley University

이번 유학생 탐사여행을 통해 제 믿음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아직 부족해서 모르는 것, 궁금한 것, 의심도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기도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정재훈, B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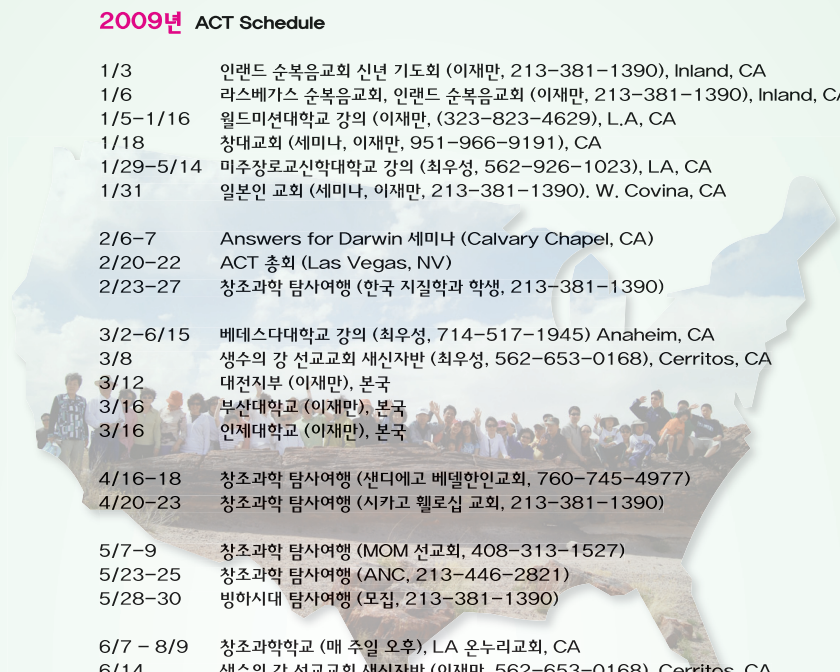
이번 유학생 탐사여행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전에도 우연하게 몇 차례 세미나를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깨어지거나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알고 있던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피부로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성경책을 집어 주시면서 그 안에 나와있는 증거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미리 숨겨두신 원리를 찾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섬세함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김수민, UIUC, Costume Design

이번 유학생 탐사여행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증거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수훈, UCLA

이번 유학생 탐사여행은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업시간에 궁금증으로 남았던 여러 issue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환학생으로 머물 남은 한 학기 동안 유학생 탐사여행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기도자로 서겠습니다. - 고효정, University of Utah, Political Science

처음엔 여행으로만 생각하고 들뜬 마음으로 왔는데 2박 3일 동안 여행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 보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유학생 탐사여행은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김예진, Utah Valley University, General

2009년 ACT Schedule

- 
- 1/3 인랜드 순복음교회 신년 기도회 (이재만, 213-381-1390), Inland, CA
 - 1/6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인랜드 순복음교회 (이재만, 213-381-1390), Inland, CA
 - 1/5-1/16 윌드미션대학교 강의 (이재만, (323-823-4629), L.A, CA
 - 1/18 창대교회 (세미나, 이재만, 951-966-9191), CA
 - 1/29-5/14 미주장로교신학대학교 강의 (최우성, 562-926-1023), LA, CA
 - 1/31 일본인 교회 (세미나, 이재만, 213-381-1390), W. Covina, CA

 - 2/6-7 Answers for Darwin 세미나 (Calvary Chapel, CA)
 - 2/20-22 ACT 총회 (Las Vegas, NV)
 - 2/23-27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지질학과 학생, 213-381-1390)

 - 3/2-6/15 베테스다대학교 강의 (최우성, 714-517-1945) Anaheim, CA
 - 3/8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최우성, 562-653-0168), Cerritos, CA
 - 3/12 대전지부 (이재만), 본국
 - 3/16 부산대학교 (이재만), 본국
 - 3/16 인제대학교 (이재만), 본국

 - 4/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760-745-4977)
 - 4/20-23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카고 헬로십 교회, 213-381-1390)

 - 5/7-9 창조과학 탐사여행 (MOM 선교회, 408-313-1527)
 - 5/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213-446-2821)
 - 5/28-30 빙하시대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 6/7 - 8/9 창조과학학교 (매 주일 오후), LA 온누리교회, CA
 - 6/14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562-653-0168), Cerritos, CA
 - 6/15-18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미준 감사 수련회, 213-381-1390)

 - 7/6-8 Come Mission 세미나 (이재만, 213-383-5499), L.A, CA
 - 7/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 7/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Come Mission, 213-383-5499)
 - 7/31-8/2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공동체, 213-446-2821)

 - 8/3-5 7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 8/10-12 창조과학 탐사여행 (터영가 소망장로교회, 818-331-2481)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